KLPGA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21’ 이변의 주인공은?

5타차 역전극…임진희 눈물의 첫 우승

4R서 놀라운 집중력으로 6타 줄여
장하나·김수지 따돌리고 극적 우승
2018년 데뷔 이후 ‘톱10’ 단 2번뿐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한 임진희(가운데)가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생애 첫 우승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2021시즌 ‘대세’ 박민지가 출전하지 않은 가운데 우승을 차지한 임진희는 동갑내기인 박민지를 떠올리며 “난 비록 행운으로 우승했지만 민지처럼 이제 많이 우승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KLPGA

BC카드·한경 LADIES CUP 2021

3라운드까지 9언더파 단독 선두를 달렸던 김수지(25)도, 8언더파 단독 2위로 4라운드에 시작하며 대회 2연패를 노렸던 김지영2(25)도 아니었다. 마지막 날 ‘데일리 베스트’인 9언더파를 몰아치며 순위를 44계단이나 끌어올린 장하나(29)도 아니었다. 2021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11번째 대회 우승 주인공은 임진희(23)였다.

2018년 정규 투어에 데뷔해 이전까지 총 57개 대회에 출전했다. 우승, 준우승은 물론 톱 5에 이름을 올린적도 단 한번도 없다. 톱10에 성공한 것은 단 2번 뿐. 누구도 그의 우승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착실히 타수를 줄이고 먼저 경기를 끝낸 뒤 초조하게 나머지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다 결국 감격적인 첫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임진희가 27일 경기 포천시 포천힐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21’(총상금 7억 원)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로 6타를 줄이고 66타를 쳤다. 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로 장하나, 김수지, 김새로미(23), 박현경(21) 등 9언더파 공동 2위 그룹 7명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상금 1억2600만 원을 손에 넣었다. 생애 첫 우승은 5타 차 역전우승이라 더 극적이었다.

4언더파 공동 13위로 4라운드를 시작한 임진희는 전반에 버디 3개와 보기 1개로 2타를 줄인 뒤 13번(파5), 15번(파4) 홀에서 각각 버디를 잡았다. 17번(파4)~18번(파5) 홀에서 잇달아 1타 씩을 더 줄이며 10언더파를 완성했다. 먼저 경기를 끝낸 뒤 한 시간 가까이 나머지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다 ‘연장 가능성’이 있었던 챔피언조 김새로미의 버디 퍼트가 빗나가면서 긴 기다림 끝에 우승을 확정했다.

2016년 투어 프로자격을 얻었지만 시드전을 3번이나 치르는 등 그동안 빛을 보지 못하다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이 된 임진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우승이라 얼떨떨하다”고 밝힌 뒤 “부모님께 항상 감사드린다. 아버지께는 죄송하고, 어머니께는 감사하다”며 진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전까지 올해 9개 대회에 나서 컷을 4번 통과하고, 시즌 최고 성적이 롯데렌터카 오픈에서 기록한 14위였던 임진희는 “차분하게 한샷 한샷 집중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운이 따라 우승했지만, 다음에는 실력으로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김효주가 KPMG 위민스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2타를 줄이고 공동 9위에 올랐다. 뉴시스

김효주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3R 공동9위

개인 첫 올림픽 출전을 사실상 확정한 세계랭킹 8위 김효주(26)가 27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존스 크리크의 애틀랜타 애슬레틱 클럽(파72)에서 열린 LPGA(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총상금 450만 달러·50억8000만 원)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더블보기 1개를 묶어 70타를 쳤다. 중간합계 6언더파 210타를 기록하며 공동 9위에 랭크됐다. 공동 선두 리젯 살라스(미국), 넬리 코르다(미국·이상 15언더파)와는 9타 차.

세계랭킹 4위이자 ‘디펜딩 챔피언’인 김세영(28)은 유소연(31)과 함께 합계 1언더파 공동 31위에 자리했고, 세계랭킹 2위 박인비(33)는 5타를 잃고 합계 이븐파 공동 34위로 밀렸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26)은 4오버파 공동 56위로 머물렀다.

김효주는 세계랭킹 16위 유소연과 포인트 격차가 커 이번 대회를 끝으로 최종 확정되는 도쿄올림픽 여자골프 출전자 명단에 고진영, 박인비, 김세영과 함께 이름을 올릴 것이 확실시 된다. 김도헌 기자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3라운드 1번 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는 이경훈. 크롬웰(미 코네티컷주) | AP뉴시스

이경훈, PGA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3R 공동 6위

이경훈(30)이 27일(한국시간) 미국 코네티컷주 크롬웰의 TPC 리버 하일랜즈(파70)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총상금 740만 달러·83억5000만 원)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3개를 묶어 69타를 적어냈다. 중간합계 8언더파 202타를 기록하며 전날 공동 4위에서 공동 6위로 순위가 2계단 하락했다. 공동 선두인 크레이머 히콕, 버바 왓슨(미국·이상 10언더파)와는 2타 차.

3번~4번(이상 파4)~5번(파3) 홀에서 연속 보기를 범하며 3타를 잃고 뒷걸음질을 친 이경훈은 7번(파4) 홀에서 6m가 넘는 거리의 버디 퍼트를 홀컵에 떨구며 반전에 성공한 뒤 후반에 버디 3개를 보태며 합계 8언더파를 완성했다. 지난 5월 AT&T 바이런 넬슨에서 PGA 투어 데뷔 첫 승을 거뒀던 이경훈은 “초반에 세 홀 연속 보기를 하면서 어렵게 플레이했다”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해 그래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도헌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페퍼저축은행 창단 나비효과…실업팀 젖줄이 마른다

스토리 발리볼

V리그 여자부 신생팀 페퍼저축은행의 등장을 많은 배구팬들이 반겼지만, 지금 배구계 여기저기에선 걱정의 목소리가 더 자주 들린다. 프로팀이 생기면 꿈나무들을 포함해 많은 배구인들에게 취업 기회가 늘어나야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현실 때문이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시즌 후 임의탈퇴로 내보냈던 최수빈을 영입했다고 25일 발표했다. V리그를 떠난 뒤 여자실업배구 포항시체육회 소속으로 뛰던 그는 1년 만에 재도전 기회를 얻었다. 이밖에도 페퍼저축은행을 비롯한 몇몇 구단이 실업선수 영입을 추진 중이다.

실업선수들에게 프로팀의 영입 제안은 경사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주전선수를 내줘야 하는 실업팀은 고민이 많다. 가뜩이나 선수가 적은데, 에이스를 빼앗기면 여러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현재 여자실업배구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대구시청, 양산시청, 수원시청, 포항시체육회 등 4개 팀이 있다. 팀마다 10명 안팎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중 4명이 이번에 프로팀으로 옮겨간다. 선수를 데려가면서 프로팀에서 보상을 해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임의탈퇴선수의 권리를 프로팀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다.

실업팀 입장에선 프로팀이 원하면 선수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 공백을 어떤 식으로든 메워야 하는데, 현재 여자배구의 허약한 생태계에선 선수공급이 쉽지 않다. “실업팀에서 뛸 만한 기량을 가진 선수를 눈을 씻고 봐도 찾기 힘들다”고 어느 실업팀 감독은 말했다.

선수수급의 불균형은 갈수록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좋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자배구선수 숫자가 이를 증명한다. 2021년 중고배구연맹에 등록된 여고 팀은 17개다. 대회 출전이 가능한 최소 규모로 선수를 구성한 팀도 많다.

2005년 V리그 출범 이후 17시즌 동안 신인드래프트에 지원했던 여고졸업예정선수는 총 504명이다. 한 해 평균 29.6명이다. 2014~2015시즌 46명 지원이 역대 최대 규모였고, 2008~2009시즌과 2009~2010시즌에는 역대 최소인 20명만 지원했다. 이들 중 프로팀에서 지명한 선수는 총 276명이다. 비율로 치면 54.7%로 졸업생 2명 중 한 명이 프로선수가 됐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정도’라는 요즘의 취업환경이지만, 50%를 웃도는 취업률은 여러 의미를 내포한다. 적어도 여자프로배구의 문턱은 낮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텃밭에서 프로 6개 팀이 운영되고, 이제는 7개 팀으로 늘어났다.

선수공급의 젖줄이 마르면 리그의 수준은 높아질 수 없다. 몇몇 주전들에게만 모든 구단이 목을 매고, 40대에도 주전으로 활약하고, 은퇴한 지 5년이 지난 선수도 현역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V리그 여자부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선수 숫자도 문제지만 꿈나무들의 기량 또한 점점 떨어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누가 제8구단 창단을 원해도 막아야 할 판이다.

현재 전국체전에는 여자실업 4개 팀에 여자대학 4개 팀까지 포함해 8개 팀이 참가한다. 이 중 한 팀이라도 선수구성이 힘들어 무너진다면 최소 8개 팀이 필요한 전국체전 여자대학·일반부 배구 경기는 사라진다. 도미노처럼 그 영향을 받아 다른 팀들도 줄줄이 해체될 수 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KBL 유일 아시아쿼터선수 DB 타이치의 두번째 도전



타이치

KBL의 유일한 아시아쿼터 선수인 원주 DB 가드 나카무라 타이치(24·190cm)는 15일부터 원주에서 진행 중인 팀 훈련에 합류했다. 체력을 다지는 훈련을 본격적으로 소화하며 KBL에서 2번째 시즌을 준비 중이다.

나카무라는 2020~2021시즌 37경기에 출전해 4.6점·1.9리바운드·1.9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간혹 인상적인 기량을 발휘하기도 했지만, KBL의 빡빡한 경기 스케줄에 적응하는 데 실패하면서 시즌 중반 이후에는 체력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또 한국에서 홀로 생활하는 탓에 향수병도 겪어야 했다. 팀 동료들과 관계는 좋았지만, 외국인선수로 타지에서 한 시즌을 보낸 경험이 없는 그에게는 만만치 않은 첫 시즌이었다.

2번째 시즌을 향한 과정은 순조롭다. 지난해 여름보다 팀 합류시점이 빠르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업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찌감치 움직여 팀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이달까지 체력훈련에 집중한 뒤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볼을 갖고 하는 훈련을 할 계획이다.

DB 이상범 감독은 27일 “첫 시즌 적응이 필요했고, 모두가 이해했다. 그러나 두 번째 시즌엔 확실히 달라져야 한다고 나카무라에게 얘기했다. 선수도 이번 시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더라. 훈련하는 모습에서도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DB 선수단에 변화가 적지 않다. 나카무라와 같은 포지션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일부 바뀌었다. 두경민이 팀을 떠났지만 베테랑 가드 박찬희가 합류했고, 슛이 좋은 가드 박경상도 DB 유니폼을 입었다. 대표팀 상비군에 뽑힐 정도로 일본에서도 기대주로 인정받고 있는 나카무라의 2번째 시즌이 궁금하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단거리 간판’ 김국영 도쿄올림픽 출전 사실상 불발

男 육상 100m 기준기록에 충족 못해

한국육상 남자 단거리의 간판주자 김국영(30·광주광역시청)이 도쿄올림픽 100m 기준기록을 통과하는 데 실패했다.

김국영은 26일 정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75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00m 결선에서 10초26으로 우승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 남자 100m 기준기록인 10초05를 충족시키지는 못해 2회 연속 올림픽 출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2위는 10초42의 이규형(24·경산시청).



김국영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했던 김국영이 도쿄올림픽 기준기록을 넘어서려면 자신이 보유한 한국기록 10초07을 넘어서야 했다. 그러나 종아리 부상의 여파로 훈련이 충분치 못했던 탓에 이날 레이스에선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내지 못했다. 기준기록을 통과하지 못한 선수들도 랭킹 포인트를 통해 도쿄행 티켓을 바라볼 수 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이날 경기 후 김국영은 “아무래도 부상 회복 후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 올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최종 목표인 9초대 진입을 향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7월과 8월 열리는 대회에 출전해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